

# 광주문학관 추진위원 일부 부적격 논란

### 비명단공개...2013년 부지 선정 당시 물의 빚었던 인사 등 포함 문학 명망가 거의 없고 추진위 공모 방식 적절성도 '의문'

광주시의 광주문학관(가칭)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일부 위원들의 도덕성 자격 등이 불거지면서 향후 문학관 건립이 다시 좌초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위원 가운데는 지난 2013년 문학관 부지 선정 당시 논란이 됐던 인사가 포함돼 있어 추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12일 오전 10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위원 명단 공개와 상견례를 비롯, 문학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 결과 보고, 문학관 건립 국비확보를 위한 사전이행 절차 등에 대한 안건이 있었다.

문학관건립 추진위원회에는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과 박항 문화관광체육실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추진 6인인 공모 6인(기획 1명, 타시도문학관 2명, 시민단체 2

명이 배정됐다.

공모 6인에는 문인·문학 관련 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위촉됐다. 문학단체 추진위원 명단은 임원식(광주문인협회), 백수인(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나일환(광주시인협회), 황하택(대한민국문학메카본부이사장), 함수남(한국지역문학인협회), 김완(광주전남작가협회) 등이다.

문제는 문학단체에 배정된 6명 가운데 지난 2013년 부지 선정 당시 '문학상 제정'을 명분으로 모예식장 건물주에게 거액의 기부를 요구'해 물의를 빚었던 모 인사가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또한 물의를 빚은 모 인사가 현 이사장으로 있는 문학협회 소속 회원도 포함돼 있어 문학계 안팎에선 2013년과 같은 상황이 재차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시가 몰랐다면 직무유기 고 알았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행정편의주의 일처리 방식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

이 돼야 할 도덕적 기준이 배제됐다는 것은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인다.

광주시는 문학단체 6인의 위촉 경위에 대해 "지난 1월 16일부터 일주일간 홈페이지에 일주일간 공모를 해, 그 결과 추천 6명에 대해 위촉을 했다"며 "모두 13명의 공모 결과를 토대로 문학단체별로 균등하게 배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 협회 회장은 "지금 공개된 위원 명단 가운데는 문학적 성취나 성과와는 별개로 추진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문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공모 방식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학단체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정했지만 몇몇 단체는 일반 시민들이나 문학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사전에 독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고 '기계적인 배분'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이번 추진위 명단에는 문학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문학적 성취가 높은 인사도 눈에 띄지 않는다. 전국적인 명망

이 있는 문학인을 중심으로 추진위를 꾸려도 간단치 않을 상황에 지금과 같은 체제로는 잡음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는 광역시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하고 문학관이 없는 광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문학관 건립이 첫 단추인 추진위부터 제대로 꾸리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2015년부터 민간 문학단체 중심으로 문학관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시가 주도적으로 문학관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추진위 구성은 그러한 열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잡음이 있는 인사 등은 원칙적으로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문학계의 암묵적인 합의마저 묵살한 행태다.

문화계 모 인사는 "민선 7기 들어 시가 문화경제부시장제를 두고 문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문예회관 관장과 문화재단 사무처장 인사뿐 아니라 문학관 추진위 구성을 보면 과연 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문화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페

요즘 제주도는 때마침 유채(油彩) 관광객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봄의 전령사인 유채(油彩)꽃을 찾는 상춘객 못지 않게 색다른 미술체험을 만끽하려는 이들 때문이다.

진원지는 다름아닌 미디어아트 전시 '빛의 방κε' 클립트'.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의 옛 통신병커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는 지난 10일 2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빛의 방케'는 영화, 미디어 아트, 음악의 조화가 빛어낸 예술의 향연이다. 프랑스 회사 컬처스페이스가 개발한 미디어아트 기술에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화가 구스타프 클립트와 예군

목은 바로 이때부터다. 노랗게 반짝이는 전시장 바닥 위를 느릿느릿 걷다 보면 마치 꿈을 걷듯 환상하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 미디어 338(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을 찾은 관람객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창의도시 사업단이 기획한 '꽃길을 걷다-김장경'전 개막식에서 환상적인 꽃과 나비의 향연에 빠진 것이다. 어두컴컴한 전시장에 들어선 관람객들은 전자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씨의 비발디의 사계 '봄' 연주와 함께 화려한 '꽃바'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미디어아트를 보고 탄성을 터뜨렸다. 마치 미디어 캔버스속의 여인처럼 아름다운

### '꽃길을 걷다'

실레, 훈데르트바서의 그림을 음악과 함께 영상화한 뒤 전시장 삼면(三面)에 투사하는 입체 전시다. 100여 대의 프로젝터가 쏟아낸 빛이 3000㎡, 높이 6m 규모 병커의 암흑을 환상적인 판타지 세계로 바꿔 놓는다.

높디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면 가로 100m, 세로 50m의 직사각형으로 구현된 어둠이 펼쳐진다. 이윽고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 서곡이 묵직하게 흘러나온다. 그러자 사방의 벽과 바닥이 고풍스러운 벽화와 장식으로 들어차기 시작한다.

뛰니뛰니해도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클립트의 '황금 시기' 작품들이다. '키스' '유디트'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 등 클립트의 대표작들이 차례 차례 주연을 온통 금빛으로 물들인다. 고화질 빔 프로젝트 90대가 사방 벽에 빛을 쏘고 70여대의 스피커는 말려, 라흐마니노프의 선율을 전시장 곳곳에 퍼뜨린다. 관객들의 환호를 자아내는 대

꽃과 나비가 어우러진 꽃밭을 산책하는 듯 했다. 실재와 가상의 조화가 빛어낸 미디어아트의 매력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이다.

광주는 지난 2014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다. 미디어 338과 홀로그래프장, 내년 완공예정인 AMT(Art and Media Technology)센터 등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상징하는 핵심사업들이다. 하지만 미디어아트창의도시가 빛을 발하려면 시민들이 내 공간, 내가 즐기는 전시라는 인식으로 돌아차기 시작한다.

뛰니뛰니해도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클립트의 '황금 시기' 작품들이다. '키스' '유디트'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 등 클립트의 대표작들이 차례 차례 주연을 온통 금빛으로 물들인다. 고화질 빔 프로젝트 90대가 사방 벽에 빛을 쏘고 70여대의 스피커는 말려, 라흐마니노프의 선율을 전시장 곳곳에 퍼뜨린다. 관객들의 환호를 자아내는 대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최태지(가운데) 감독이 지난해 열린 '발레 갈라 콘서트'에서 해설하고 있다.

## '해적' 등 해설이 있는 발레 갈라콘서트

시립발레단 20일 문예회관

최태지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의 해설과 함께 주요 발레 작품을 즐기는 '발레 갈라 콘서트 #1. 클래식 명작발레'가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클래식 발레 명작인 '에스메랄다'와 '해적', '할리퀸에이드', 그리고 시립발레단이 4월 5~7일 공연하는 '라 실피드'의 명장면을 무대에 올린다.

먼저 '에스메랄다' 중 '다이에나&악테온 그랑 파드 뒤' (2인무)로 무대의 문을 연다. 빅토르 위고 '파리의 노트르담'이 원작으로

1884년 런던에서 초연됐다. 15세기를 배경으로 매혹적인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향한 콰지모도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준다.

이어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가 새롭게 만든 '해적'의 그랑 파드 뒤가 펼쳐진다.

'라 실피드'는 22년 만에 한국 무대에 오르는 2막 발레작품이다. 이날은 강은혜·제임스·우경희·이기행·전진미·송관석·조현자·김민석·박경애 등이 1막 '파타시옹'과 2막 '그랑 파드 뒤'를 선보인다. 최 감독은 '라 실피드'의 감상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전석 1만원(학생 5000원). 문의 062-522-871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33회 광주연극제' 최우수작품상을 받은 극단 '얼·아리' '그래도, 따뜻했던.'

## 광주연극제 최우수작품상 '그래도, 따뜻했던'

극단 '얼·아리' 3관왕

'33회 광주연극제' 최우수작품상을 극단 '얼·아리(연출 양태훈·극본 김경숙)의 '그래도, 따뜻했던.'이 선정됐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원광연)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열린 '33회 광주연극제' 수상작과 수상자 명단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경연에는 '극단 진달래피네', '시민', '유피씨어터', '얼·아리' 등 4개 극단이 출품했다.

극단 얼·아리는 최우수작품상과 함께 연출상(양태훈)과 우수연기상(정경아)도 배출했다.

극단 얼·아리는 5년 전 '발톱을 깎아도'로 32회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그래도, 따뜻했던.'은 차체를 잃으며 요양원에서 지내는 영순과 그의 자식들을 둘러싼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 다른 우수연기상은 '내 안에 품금'에서 박봉구 역할을 맡은 표정화씨가 받았다. '내 안에 품금'에서 오동식을 연기한 김현규씨가 신인연기상을 수상하고 같은 작품에서 무대미술을 맡은 이현씨가 예술상을 받았다.

극단 얼·아리는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4회 대한민국연극제'에 광주 대표로 참가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ACC 전문인력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ACC)은 어린이문화콘텐츠 기획자, 융복합문화기획자, 디지털마케팅, 영상제작, 사운드엔지니어, CT프로그래머 등 'ACC 전문인력 아카데미'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ACC 전문인력 아카데미'는 작년의 강좌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학기제를 도입해 4월부터 11월까지 정규과정으로 편성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희망자는 서류심사를 통해 분야별 최대 30명을 선발하며 수강신청은 ACC 홈페이지에서 오는 26일까지 할 수 있다. 교육비는 과정별 15만 원,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2-601-4750.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어려분~ 부자되세요!

###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 백세 쭈꾸미식당

전남 나주시 이창동 158-16번지  
쭈꾸미, 삼겹살, 갈비, 오리로스

☎061)332-7313, 010-8224-7313

###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입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빌딩)  
하모(참장어), 샤브샤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텐,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폴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죽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

###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 씨브웨이 광주충장로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업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합,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 하안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동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클레버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 그 집 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 꼬야전통마사지 전문점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25, 2층  
(남평5일시장앞 대로변 새건물2층)  
최신시설완비 남.여 마사지 전문점  
친절 신용 분위

☎010-9277-2011, 010-4624-8457

###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062)263-2223

###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 루팡닭강정

북구 용봉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